

<2013년 7월 19일 금요일 진성운 선생님 명강의>

<2005년 12월 11일 주일말씀>

자기 때

본문: 잠언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2005년 12월 11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각종 개성의 삶 속에 모두 잘들 지냈습니까? 부지런히 뛰다 보면 일주일이 일순간에 지나가고, 할 일 없이 어청거리다 보면 지루한 시간의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온 섭리의 나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일동안 진행될 주일말씀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 한 절 말씀이 이 주일에 들을 말씀의 본문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은 기념할 때에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계속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는 잠언의 말씀이 연속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10장 5절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 때”라는 말씀으로 한 주일 동안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성서 본문을 중심으로 구약, 신약, 이 시대 성약의 말씀까지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말씀인 10장 5절을 잘 보고, 자기 때에 게으른가 혹은 자기 때에 부지런한가 살피면서 한 주일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전체 섭리나라의 사람들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처음 온 여러분들도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

께 영광의 찬양을 멋있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각종 악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목을 빼고 악기가 터질 정도로 부르고, 그리고 몸으로 노래하는 자들은 우람하고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섭리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빛나는 주일 아침입니다.

모두 일어나시고, 악단들은 모두 준비해서 연주하고, 나는 멋있게 신적 지휘를 해주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었지요?

♪ 찬송가 248장 “섭리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제부터 오늘 봉독한 본문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일동안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말씀을 통해서 한 주일동안 진행될 모든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물론 말씀을 전해주는 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중간 중간 설명해주겠지만 여러분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정신을 쏠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할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깨닫고 그 경지에 살아서 이 같은 말씀이 나오기도 하였고, 그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기에도 한 잠언입니다. 잠언이 무엇인지 알지요? 여러분에게도 생활의 잠언을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나타내 놓았는데 자신이 지혜를 받아서 쓴 잠언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쓴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이 잠언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지금까지 1만 3천 잠언을 썼는데 잠언이 많이 나갔지요? 한 6천 잠언까지 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주일말씀 할 때 잠언의 말씀이 나가는데 한 번 설교할 때 추려서 한 20개씩 늘 나갑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흔히 잠언의 말씀을 받아쓰기도 하고, 또 즉 설교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10장 4절부터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부자가 된다.”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잘삽니다. 그래도 게으른 자보다는 잘살지 않습니까? 이는 누가 꺾어봐도, 누가 불지라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자를 손이 부지런한 자라고 하며 ‘손’으로 표현했는데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잘산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고, 악인들은 독을 뽑어내고,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는 한 주일동안 이렇게 말씀이 지나왔습니다.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 시대에 신약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천국이 시작되었다.”

“언제부터요?”

“이 시대의 세례요한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 약 50년이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50년이 된 것을 알았을까요? 이 섭리역사를 내가 시작한 지 약 25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를 개척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기다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뜻을 펴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벌써 25년이 되었으니까 세례요한도 적어도 한 25년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0년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시작되는데 게으르면 되겠느냐? 부지런히 거둬야지. 부지런히 누려야지. 부지런히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성서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하나님이 실행하니까 이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아들이 되겠지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것은 “제때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제때 모든 일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 때 못하면 게으른 사람들이다! 제 때 해야 된다. 꼭 제때 해야 된다. 제 때 못 하면 안 된다. 제 때 해야 된다.”

농사짓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제 때 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옷을 사러 다닙니다. 그때 사다 놓아야 제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제 때 해야 거둘 것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제때 못하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제 때 해야만 존재하는 것들이 성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때 못하면 안 됩니다.

제 때가 어느 때냐?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말하겠습니까. “그 때에, 제 때 하라. 바로 그 때가 제 때다.”

제 때가 뭔지 압니까? ‘자기의 때다’ 그것입니다. 제 때, 저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거두는 것이라 했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 가꿔서 여름철에 거두는 것이 있지요? 보리농사는 여름에 거둡니다. 여름에 거두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초봄에 씨를 뿌려서 농사지은 것은 여름철이 되면 벌써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감자도 캐 나르고, 봄에 뿌린 여러 가지 채소들이 성장해서 벌써 거둬들입니다. 곡식 중에는 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씨를 뿌려서 가꾼 것은 가을에 거둬들입니다. 계절로 보면 그렇습니다. 가을에 거둬들이는 사람도 역시 제때 거둬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겨울에 거둬들이는 사람은 거둘 것도 없습니다. 눈이 펄펄 쏟아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지금 눈이 오지요? 한국에는 지금 대설주의보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눈이 펄펄 올 것입니다. 눈이 오는데 추수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때가 넘어서 곡식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 때라는 것은 자기 때라는 것입니다. 제 때라는 것은 “저의 때입니다.” 그 말입니다. 저의 때에 거둬들여야 됩니다.

자기의 때가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는 때가 있고, 자기가 안 뉘웠을 때 그것이 자기 때이지 누구 때입니까? 남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안 뉘고 씻지 않으면 자기 때입니다. 이것은 목욕탕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간의 ‘때’는 다르지만 한국말로만 단어가 같습니다.

자기가 안 씻으면 자기 때가 있습니다. 자기 때는 시원하게 자기가 벗겨야 됩니다.

주일날에는 꼭 때도 벗기고, 깨끗이 닦고, 예쁘게 하고 와야 됩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을 만나러, 자기의 구원자를 만나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만나러 오는 날입니다. 주일날 나를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이 깨끗이 안 하겠습니까? 서로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깨끗이 하고 오는데 어느 때는 너무 지나치게 화장 분장까지 하고 올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주일날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가 아닙니까?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운 자요 게으른 자요 미련한 자라 했습니다. 추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기 때입니다. 추수 때란 자기 때입니다. 인생의 때뿐만 아니라 곡식의 때도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추수 때는 내 때도 되지만 곡식의 때도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와 같이 그러하다. 이러하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라는 것은 주인인 나의 때도 되지만 거둬들여지는 곡식의 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참으로 게으른 자요, 참으로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난처한 꼴을 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때, 자기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때가 있습니다. 자기 때는 자기가 할 일의 그 때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내 때에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합시다. 지금은 과일 철이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있는 나라를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겨울이 없는 나라들도 역시 그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 농사지어 탄 과일을 장사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여름철이 진행되는 나라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가령 감을 먹고 싶다고 하면,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에 가야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도 때가 있어서 그때에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는 반드시 추수할 것이 논밭에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 하면 딱 맞습니다. 그때 못하면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때에 꼭 하라! 자기 때라는 것은 기회다. 자기 때라는 것은 자기 세상이다. 자기가 주인공인 세상이다.”

절대로 추수 때에는 줄아서도 안 되고 잠을 자서도 안 됩니다.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자기 때가 있습니다. 자기 때를 자기가 모를 때는 상대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누가 “여보게? 여보게?” 하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왜?”

“아니, 뭐하는 거여?”

“뭐하다니? 나 지금, 열심히 밀린 일을 하지.”

“이 사람아, 지금 밀린 일을 하다니? 자네 밀린 일을 하면 되나? 나랑 약속했는데 그 일을 해야지.”

“어? 약속했나?”

“약속했잖아. 내가 지금 부랴부랴 백리 길에서 왔는데.”

“글쎄. 달력에 내가 표시를 해놨구먼. 기다려.”

이와 같이 상대를 통해서도 자기 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기다리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때가 되었으면 우리 때도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때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때는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때밀이한테 밀어달라고 하든지, 자기가 밀든지, 등에 손이 안 닿으면 기둥에 수건을 말아놓고 밀어대든지 해서 때를 밀듯이 자기 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생의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도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으면 사람들도 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봉독케 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참으로 위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성공 법칙을 보면 제때 일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제때 일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제때 일을 해야 됩니다.

“제때 못하는 것이 게으른 사람들이다. 제때 해야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제때 전에 하는 사람들은 지나친 사람들이다.”

천국이 시작되었으니 부지런히 열심히 제때 천국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애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칠 수 없고 몇 가지만 든다면 나와 마음이 안 맞는다. 시간이 안 맞는다. 시간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맞추어서 항상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에 번쩍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제야 서쪽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게을러서 그런다고 하시며

부지런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의 누구든지 부지런해야 잘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안 될 것도 됩니다. 부지런하면 잡지 못할 산짐승도 잡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할 때 못 얻을 것도 얻게 됩니다.

부지런함의 한계는 “제 때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부지런함의 한계입니다. 제때 못하면 다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고, 게으른 사람인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섭리사에 1년 동안 말씀한 것을 보면 부지런 하라는 설교도 꽤 많이 나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부지런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한 화목 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증거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대는 추수 때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일어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친구가 부르는 소리 같이 천국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뿔뿔히 나고 큰소리를 치며 땀땀거리며 책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지 않습니까? 천국이 왔으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놀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성 시대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기성시대는 건어치움을 받은 세계입니다.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도 없거니와 때가 지나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추수 때와 같이 천국의 삶에 발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늘 주일말씀을 보면 지난주일 말씀에 비늘을 달아서 해 갑니다. 툭 떨어진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추수 때라는 것은 곧 자기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때에 꼭 하라는 것입니다.

때는 자기뿐만 아니라 항상 상대적 세계로 존재합니다. 상대 세계도 때가 되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면 인간의 때가 되었다. 같이 움직여야 역사가 일어

난다.”

비유를 들어 말할진대, 여자가 시집갈 때가 되어 혼인잔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와 약혼한 사람도 혼인잔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결혼할 때가 되었다, 잔치할 날이 되었다 하면 여자도 잔치할 날이 된 것입니다. 그와 약혼했기 때문에, 그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양단의 세계는 일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요, 우리는 신부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의 잔치 때가 되었으면 우리 신부들의 잔치 때도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떤 추수 때에 곡식 추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2천년 역사동안 지상천국 혼인잔치 역사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하러 오시니까 우리도 신부로서 단장하며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결혼하는 날 신부가 다른 데로 가면 되겠습니까? 신랑이 예식장으로 혼인예식을 하러 가는데 신부는 다른 데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신랑이 지구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러 오시는데 우리는 딴 데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방향이 딴 데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소망하면 되겠습니까? 혼인잔치 장소로 약속대로 칠보단장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결혼식장에 가는 것이 필요하듯이, 그와 같이 자기 때에 움직여라.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실책이냐? 난처한 일이냐? 창피냐? 실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잘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안 하면 큰일 난다.’ 생각하면서 하면 척척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일로 생각하면 ‘에이, 이까짓 거 뭐 늦게 해도 되지 뭐. 피곤한데 늦게 하지 뭐.’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딱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책임이 커지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신부라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상대적인 존재자이니까 버뜩버뜩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그리고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많이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게을러서 얻지 못해서 3년 후에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몸부림을 치고 이를 갈면서 얻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게으름은 너무 무섭구나. 저주로구나!’

게으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석을 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받는다.”

자는 것은 육신이 피곤해서 자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졸리기도 합니다. 흑암, 어둠들은 항상 방해를 합니다. 생리적으로 졸리는 것, 영적으로 흑암들이 방해해서 졸리는 것 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흑암들, 마귀, 사탄, 귀신들은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나는 그것을 수백 번씩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경험 안 해봤습니까? 마귀가 졸게 하고 귀신들이 졸게 합니다. 상대성의 이치로 그렇게 합니다. 정말 졸 때가 아닌데 막 졸음이 올 때는 흑암, 사탄들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몸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피곤해서 조는 것이 있습니다. 과로했을 때 밥 먹고 나면 피로해서 막 조는 순간, 잠을 잘 시간이 되어서 피로한 것,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잘 자고, 아침밥도 잘 먹고 교회에 왔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귀신과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귀신아, 너희들을 내가 책망한다.”

이를 깨닫고 모두 각자는 자기 때에 졸지 말기 바랍니다. 추수 때에 졸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때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말씀 들을 때나 기도할 때만 되면 막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땡땡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자빠지고 그러니까. 겨울철이 돼서 이제 그런 것은 조금 덜 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조는 것은, 자기 기도 생활을 안하고 자기 책임을 못함으로 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책임분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마귀 사탄 귀신들이 신앙이 졸게 죽게 합니다. 존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을 죽게 한다고 크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석가입니다. 제 이름의 ‘석’자는 ‘쪼갠 석(析)’ 자입니다. 나무 목(木)에 도끼(斤) 변입니다. 그래서 탁탁 쪼개어 나갑니다.

사탄과 마귀를 경히 여기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보다 더 강하고 무섭게 지랄들을 합니다. 귀신들, 악령들. 악령들의 주관을 받으면 악한 사람들이 돼서 엄청나게 본의 아닌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마귀들을 측정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때가 있는데 그 때에 꼭 하라! 안 하면 큰일 난다! 밥을 먹지 말지라도, 잠을 자지 말지라도 꼭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연속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때”라고 했습니다. 자기 때에 꼭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합니다.

‘언제가 내 때인가?’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끼리 따질 때 나는 하늘이 보낸 시대의 신랑이요,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또 하나님과 따질 때는 나는 신부요, 하나님은 신랑입니다.

‘언제가 우리 때인가?’

“내가 외치지 않느냐. 부지런하여라. 빨리 하라!”

본인들이 모르니까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철이 왔습니다. 한국은 이 눈보라가 쏟아지기 전에 3,130명을 수료시켰습니다. 이제 눈이 쏟아지니까 여러분은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야~ 저 밭의 식을 거둬들이듯이 내가 생명을 거둬들었으니 다행이다.’ 그럴 것입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이 눈보라칠 때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추수하려고 하니까 생명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추우니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우면 딱정벌레도 들어가고 추우면 벌거지도 땅속으로 기어들어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때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겨울철에 전도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행한 사람은 보람 있을 것입니다.

“자기 때에 꼭 하도록 하라. 자기 때에 못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겨울철에는 추수할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겨울은 언제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자고 쉬라, 그런 때가 겨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겨울은 언제입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무덤기간! 이런 때를 영적인 겨울이라고 특히 분별할 수 있고 쪼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계절과 상관없이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역시 봄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는 추수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눈이 쌓였다고 해서 “이제 추수할 것 없어.” 해

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곡식을 거두는 농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거둬들이는 하늘의 일꾼들이고, 하늘의 생명의 사역자들이니까 눈이 쌓였을지라도 전도할 때가 되었으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도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도 움직여야 되지만 그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이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앞에 보입니다. 그때는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둬들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익은 곡식을 거둬들여라. 거둬들여야 되겠다.’ 이와 같이 느낌이 옵니다.

어떤 곡식은 좀 덜 익었는데 거둬들여야 됩니다. 남이 베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베어 와야 됩니다. 어떤 참외는 덜 익었지만 따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따서 집에 갖다 놓고 익기를 바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과일은 덜 익었는데 따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덜 익었을 때는 안 따가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익게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따가게 생겼기 때문에 따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롭게 늘 살피다가 자기 때에 거둬들여야 됩니다. 곡식들이 가을이 되면 “나를 베어가라!” 하고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과일들이 익어서 “나를 따 달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개가 도둑이 오면 짖고 낫 설은 사람이 오면 짖듯이 곡식들도 역시 자기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추수자를 기다립니다.

생명을 추수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절은 육적인 계절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아무 때나 바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전도자가 전도를 못하면 그 사람이 10분 있다가 죽는 수도 있고 20분 있다가 죽는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안 죽습니다. 전도를 얼른 해버리니까 안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얼마나 위력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운을 가지고 돌아다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꼭 화를 받을 사람도 말씀을 전해서 그때에 그 사람이 따르면 죽을 운도 확 돌아가 버립니다. 죽지 않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하늘 운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생명을 뺏기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사람과 일체되면 하나님과 그와 일체된 격이 되기 때문에 큰 운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운, 진리의 운이 그렇게 큼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부지런히 생명의 사람을 찾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그들의 운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그들의 인생의 운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기 때에 열심히 하라! 자기 때에는 남이 자든 졸든 그것 쳐다볼 것 없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때가 각각 다릅니다. 전부 다릅니다. “나는 일하는데 너는 왜 쳐다보고 놀고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때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 때에 옆의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가 하고, 자기가 거둬들이고,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자기가 보람을 누리는데 왜 자꾸 옆의 사람을 보고 “왜 너 자느냐?” 합니까? 그 사람의 때는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사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나는 열심히 전도하고 나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데 왜 안 하지?’ 하며 시험들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생각들입니다.

“자기 때에만 열심히 하라. 그러면 잘되고 형통된다.”

장년부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축복가정들, 그리고 중고등부 10대들 뿐만 아니라 20대, 대학부들, 청년부들 모두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기 때에 했을 때는 너무 잘 되었는데 자기 때가 지나가서 했을 때는 안 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꼭 그 때에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성약의 역사가 선포되어서 세례요한의 역사가 지나갔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역사가 벌써 진행 중인데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막 외치고 다니고 야단쳐도 그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 때도 그러했고, 모세 때도 그러했고, 노아 때도 그러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외면들을 하고 극적으로 반대하는 일들이 옛적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이 이에 더욱 혈안 되어서 같이 동참하고 합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니까 더 힘 있게 전하고 더 소망 있게 전하고 더 확실하게 전하고, 이끌어내고, 추진력 있고 설득력 있고 감동력 있게 행하면 그들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원찮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힘 있게, 강하게, 담대하게, 희망 있게, 소망 있게 쪽쪽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비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때를 모르고 있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쳤어도 그들은 외면까지 했습니다.

자기 때를 꼭 추수 때라고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때, 추수 때다! 추수 때는 자기 때를 말한다.” 이것을 알고 시대의 말씀을 좇아 열심히 행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지키라고 한 주일동안 연속해서 강하게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했습니다.

“때를 꼭 지켜라. 안 지키면 안 된다. 생각해 보라. 과거에 때를 지켜서 행했을 때는 얻었고, 때를 못 지켰을 때는 엄청난 것을 못 얻었지 않느냐? 때에 타다탁 행해 나가라.”

지난주에는 “힘쓰는 자는 뺏는다. 힘쓰는 자는 얻을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부지런히 때에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말씀이 끝나면 나는 세계 각 나라의 집회에 가서 또 외쳐야 됩니다. 때가 되었으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나 피곤한데. 주일말씀 끝났는데 아이고, 숨 돌릴 시간도 없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사정입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들,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 기다리니까 그들 때에 가야 됩니다. 그들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때도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이 “오늘 시장에 맛있는 거 사먹으러 갈 거야.” 하는데 “너나 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때도 됩니다. 신랑의 때도 되고 자기 사랑하는 애인의 때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 나 열심히 시를 쓰겠어요. 멋있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행하십니다. 내 때도 하나님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오늘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때가 하나님 때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같으면 안 할 것입니다. “너나 해. 나는 지금 바빠.” 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야, 오늘 나 뛰러 나간다. 너는 뭐할래? 손아.”

“나도 뛰러 나가야지. 내 때인데.”

그렇게 척척 지체가 일체되듯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데 몸은 갈래?”

“못 가겠어. 나는 억지로 끌려가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이 “간다. 너, 마음도 갈래?” 했을 때 “어, 나도 가야지. 내 때도 같이 됐는데.”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한다, 우리 때도 되었다! 내가 일한다, 하나님도 일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한 몸 일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고 잘 알겠지요?

이렇게 역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척척 안 되었습니다. 신약역사가 되었는데도 구약인들은 “내 때 아니야. 저들 때여. 저 새끼들 때여.” 그래서 저희들끼리 서로 흠어지고, 신약역사도 곤고 속에 뛰면서 희망 속에 그 나름대로 갔지만 구약이 처져서 옛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약 역사가 시작되어서 “때가 되었다.” 하고 뛰는데 신약의 사람들이 “우리 때 아니여. 너희들 때여.” 그랬습니다. “내 때 아니고 니 때라.” 했습니다.

“내 때가 있으면 니 때도 있다.” 하면서 가야 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 목욕탕에서 때 밀어.” 했는데

“저는 때 없어요.”

“가봐. 나도 때가 있는데 너도 때 있겠지.”

이와 같이 내 때가 되었으면 그들 때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때가 되었으면 인생들도 때가 되었고, 인생들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금주 말씀을 어느 정도 알겠지요? 오늘 처음 오신 신입생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이렇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스토리(History), 하나님의 역사의 때는 이렇게 철길 위에 천리마가 달려가듯이 죽 가고 있습니다. 천리마가 가면 동네마다 역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때에 맞춰 나와 있다가 열차가 쉴 때 올라타지 않습니까? ‘[열차는 가더라도 내 때가 아니니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차가 왜 갑니까? 사람을 태우려고 가려고 가는 것인데 왜 자기 때가 되었는데 가만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러합니다. 천국 오기를 기다렸고, 이상세계가 오기를 기다렸고, 주님 오기를 기다렸고 계속 기다렸는데, 아니 계속 기다리고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왔다고 외치고 “빨리 나와라! 뭣들 하는 거야. 등불 켜놓고 나와. 등불이 필요 없어. 벌써 날이 샀어. 온 지가 오래돼서 날이 샀다니까!

빨리 와!” 하는데 그래도 안 나옵니다. 뭇들 하는가 하고 가보니까 잠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면제까지 먹었더라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생겨서 수면제까지 먹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깨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이 돼 버렸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비유할진대 그러하다 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가 시작돼서 가기 때문에 구시대와 신시대의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갈등을 느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말씀을 듣는 사람은 좀 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전도하면서 구시대 사람을 끄집어내보면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계속 그 구시대 사람의 자손들이 살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도 부딪쳐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내일 새벽부터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 저녁에 또 몽땅 가지고 와서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찬란한 역사의 빛을 발하며, 부지런히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신부 때는 하나님의 때도 된다. 신랑 때는 우리 때다.” 하면서 척척 맞추며 가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전도하라! 전도 때가 있고 사랑하는 때가 있다!!

잠언을 통해서 “누울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다시 주울 때가 있다. 비가 올 때가 있고 가물 때가 있다.” 했습니다.

때 전에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하라. 빨리. 빨리. 서둘러. 서둘러! 콰이 콰이! 하야쿠 하야쿠 (はやく) 빨리! 빨리!” 하지 않습니까?

“빨리 하자! 눈 온다. 이제 못한다. 땅 언다. 큰일 나. 이러다 바깥에서 잠잔다. 빨리 하자. 눈 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때에 부지런히 뛰고 달리기 바랍니다. 시대의 눈보라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쏟아지니까 자기 때에 빨리 못하면 땅이 열고 동절기가 오듯이 신앙의 그런 때가 닥치고 맙니다. 믿습니까?

부지런히 하자! 악인들, 악한 자들이 반대해도 싸우지 말고 우리의 일만 부지런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지나가면 그들은 역시 바깥에서 잡초처럼 없어지는 것입니다. 괜히 악인들과 싸우다 보면 자기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잔치 집에 가는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잔치 집으

로 가는데 동네 개들이 나와 짖는다고 개들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나를 환영하는구나!” 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괜히 개와 싸우다가 장단지 물리고, 또 미친개들한테 물리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미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짖는 개들은 또 동네를 지나가면 안 짖습니다.

그러면 수요일을 기다리고, 내일 새벽부터 연속되는 말씀을 또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찬양을 먼저 할까요? 찬양하고 봉헌 기도까지 해주겠습니다.

<봉헌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우리 몸이 제물이 되어서 모든 제단 앞에 드립니다. 청춘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소질과 재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두 드리며 가는 이들을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사랑의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늘 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건강케 해주시고 이들이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자기 때에 꼭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일에 모두 10배, 100배, 1000배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잘되고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전도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왔는데 꼭 결실하고 끝까지 남아지는 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자기 때에 꼭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자기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지런히 또 씨를 뿌려서 많은 것을 거둬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드린 것을 주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기꺼이 받으시고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감사하며 봉헌하옵사옵나이다. 아멘.

<권면의 말씀>

요즘에 전도된 사람들 3,130명의 신입생들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 늘 관리해야 됩니다. 벌써 보고가 들어왔는데 핍박을 받게 되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되고, 너무 핍박을 받게 되니까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부지런히 관리해주고 전도자들이 관리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낳았으니까 계속 길러주고 붙잡아주고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오늘 새로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수료한 사람들, 시대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때가 되었으니까 부지런히 뛰고 달려야 되겠습니다. 꼭 열심히 뛰고 달리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제단에 신입생들 몽창 인도해오고, 새벽제단에도 신입생들이 참석한다는데 그것을 이미 알고 새벽제단 말씀도 신경을 아주 쓰고, 또 요리를 멋있게 해서 나옵니다. 그런 줄 알고 불철주야 열심히 하자는 것입니다.

12월 달에는 너무 모임이 많아서 연속되고 끝이 없는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모임만 갖고, 소모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도 되니까 나를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광고를 마치고 여러분과 내일 새벽, 그리고 수요일 제단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축도찬양을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 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추수 때는 바로 내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어봐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밤중일지라도, 밥을 못 먹었을지라도, 졸릴지라도, 피곤할지라도 내 때가 왔으면 부지런히 뛰어나가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때에 못함으로 치명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때를 거울삼아 부지런히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오늘 말씀을 온 섭리사에 선포하고 한 주일동안 말씀하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온 지구촌에 있는 섭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거룩히 여기며 감사하며 두려워하며, 온 상천하에 하나님 같은 신이 감히 하나도 없으며 만분의 일도 따를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하옵나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날마다 섭리역사에 능력과 권능으로 임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내 간구한 간구가 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며 온 섭리를 따라오는 자들에게와 앞으로 들어올 모든 자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주일 말씀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